



유두(流頭)의 세시풍속

강 옥
자유기고가

산과 바다가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계절은 어느새 여름 한가운데의 절기로 접어들었고 본격적인 휴가철도 시작되었다. 여름의 한복판인 복중(伏中)에 들어있는 세시풍속으로 유두(流頭)가 있다. 음력 6월 15일로 유두는 유두날이라고도 하는데 이때쯤이면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시기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두날이 되면 일가나 친지들이 맑은 시냇물이나 산간폭포를 찾아가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은 후, 가지고 간 음식을 먹으면서 서늘하게 하루를 지냈다고 한다.

이것을 유두잔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름에 질병을 물리치고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전해져 내려왔다. 이 풍속은 아득히 먼 신라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고려 희종 때의 학자 김극기(金克己)의 《김거사집》에 “동도(東都:경주)의 풍속에 6월 15일 동류수(東流水)에 머리를 감아 액을 떨어뜨리고, 술 마시고 놀면서 유두잔치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풍속은 《고려사》에도 보이는데 6월 15일 동류수에 머리를 감아 불길(不吉)한 것을 없애고 술을 마시고 노는데 이를 유두음(流頭飲)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액막이로 주호를 장만하여 수정(水亭)이나 계곡을 찾아가서 풍월을 읊으며 술을 마시고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 이 풍속은 조선시대 까지도 계속되어 토속적인 명절로 자리 잡았다. 경주와 상주 지방에는 아직도 이러한 유두의 풍속이 남아 있다.

‘유두’란 말은 일반적으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의 준말에서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동류수에 머리를 감는 것은 동쪽



이 청(靑)이며, 양기가 가장 왕성한 곳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즉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 밝은 곳을 나타내며 음침한 잡귀나 상스럽지 못한 일들이 감히 덤벼들지 못한다는 상징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또한 유두를 신라 때의 옛말인 소두(梳頭)·수두(水頭)라고도 표기하는데, 수두란 물마리(마리는 머리의 옛말)로서 ‘물맞이’라는 뜻이다. 오늘날에도 신라의 옛 땅인 경상도 지방에서는 유두를 물맞이라고 부르고 있다.

유두절을 전후해서 산과 들의 자연은 녹음방초가 한층 싱싱하고 무성하게 자란다. 신(神)과 조상을 받드는 정신이 강한 우리 겨레는 온갖 곡식과 과일이 새로 나오면 반드시 천신(일종의 감사제)한 다음에 먹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다.

이날 아침 각 가정에서는 유두면, 밀전병, 수단(水團), 건단(乾團), 그리고 피, 조, 벼, 콩 등 여러 가지 곡식과 이 때쯤 한창 열리는 수박과 참외를 따고 국수와 떡을 해서 사당에 제를 지내기도 하는데 이를 유두천신(流頭薦新)이라고 한다. 수단이란 떡은 찹쌀가루를 찌서 손으로 비벼 새알이나 구슬만큼 씹 동그랗게 만든 뒤, 그것을 찬물에 담갔다가 꿀물을 묻혀 먹는 것이고, 찬물에 담그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이 건단이다.

밀가루를 반죽해 놓고 콩이나 참깨로 소를 만들어 넣어 찐 것을 상화병(霜花餅)이라 한다. 밀가루를 반죽하여 판 위에 놓고 방망이로 밀어서 넓게 펴 만든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나물로 소를 만들어 넣거나, 콩과 참깨를 섞어 소를 만들어 꿀을 발라 만든 떡을 연병(連餅)이라 한다.

나뭇잎 형태로 주름을 잡아 주둥이를 오므려 붙이고 채룽에 찌서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한다. 이것들이 모두 유두날의 시절음식으로 농가에서는 유두날 떡과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논외 물꼬와 밭 가운데에 차려놓고 한 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기도 했다.

유두날 선비들은 유두천신의 예가 끝나면 술과 고기 등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녹음 짙은 계곡이나 물가에 있는 정자를 찾아가 풍류를 읊조리며 하루를 즐겼는데 이를 유두연(流頭宴)이라고 일컫는다. 또한 여인들의 ‘물맞이’ 풍속으로 동네 근처의 한적한 곳에 흰 포장의 차릴 막을 치고는 머리를 감고 몸에 물을 묻히면서 하루를 지냈다. 이렇게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 것은 심신을 물에 담가 더러움을 떨쳐버리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

또한 유두날 유두 국수를 먹으면 장수하고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남녀노소 함께 모두 먹는데 햇밀로 국수를 밀어서 닭 국물에 말아먹는다. 또한 밀가루로 반죽한 것을 구슬크기 만큼 둥글게 빚어 여러 가지 색으로 물을 들여 세 개씩 포개어 색실로

꺾어서 허리에 차거나 대문 위에 걸어두는 풍속이 있다. 이는 잡귀의 출입을 막고 액을 쫓는다는 의미로 유두날에 있었던 아름다운 민속이었다.

한편 음력 6월을 ‘썩은 달’ 이라고도 불렀다. 대체로 비가 많이 오고 소서(小暑), 대서(大暑)의 절후로서 더위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달에는 대체로 혼인날을 잡지 않았고 “얕은 방석도 옮기지 않는다.” 하여 이사 가는 일도 더욱 꺼려했다. 또 더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삼복(三伏) 중 초복, 중복도 대개 이달에 든다. 어찌 보면 음력 6월은 더위와 장마와 싸우는 계절이라 하겠다.

유두의 민속적 풍습은 이미 사라졌지만 아직도 지방에 따라서는 독특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풍습은 남아 있다. 지금도 유두날 전북지방에서는 떡을 해 가지고 논이나 논두렁에 던지며 “유두날 풍년이요” “유두날 대풍이요” 하고 풍년을 비는 풍속이 있다.

농경시대에 있어서 농부들의 농한기가 마침 유두일을 전후해서 있었다. 힘겨웠던 농부들은 하루쯤 유두놀이를 하며 휴식을 하는 것이 더욱 농사의 힘이 되기도 하였다. 🍌

